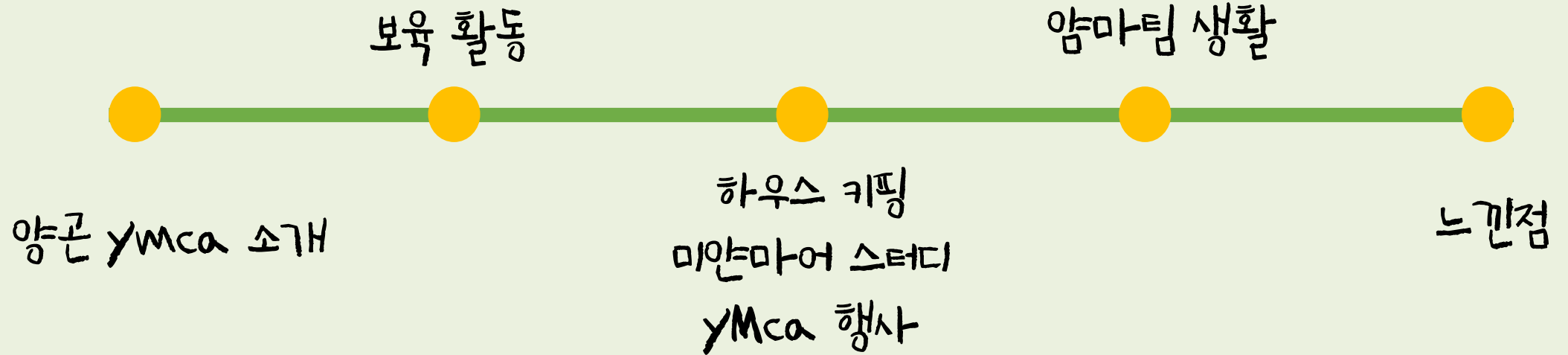


라운아띠 1871 앵마팀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 미안마를 만나다

9월 보고서 목차



양곤 YMCA 소개



[YANGON YMCA]

MAIN WORK : 보육활동
SUB WORK : 하우스 키퍼

미얀마의 경제수도라고 불리는 '양곤'에 위치한 YMCA에서 우리의 활동



보육활동

3-5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보육



게스트하우스
하우스 키퍼

많은 미얀마 청년들과
미얀마 여행객들의 게스트하우스



가족 소개



엄마



Raonatti master
산드라

하루 종일
라운아피 걱정

말쟁쟁이 셋째 아들



Guitar master
모지

하루 종일
어떻게 장난칠지 생각

말쟁쟁이 넷째 아들



Cooking master
알렉스

하루 종일
어떻게 놀릴지 생각

2018 라운아피 야마팀



가족 소개



첫째 아들



화장실 master
이한희

꽤 변~ Peace

둘째 아들



애교 master
김차훈

힝 아파앙~TT



가족 소개



첫째 딸



소울리스 master
명 화진

땡큐 땡큐 고마워~
(하나도 안 고마움)

둘째 딸



(사람) copy master
심 하진

배에 치이는 중..

셋째 딸



꽃받침 master
이 현아

앗... 치통!



일정 소개



[SCHEDULE]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육

월요일



● 마 오글라바 YMCA

화요일



● 양곤 YMCA

RaonAtti 2018 라온아띠 양마팀





[SCHEDULE]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육

수요일



● 라인따야 YMCA

목요일



● 수베바다 초등학교

RaonAtti 2018 라온아띠 양마팀





[SCHEDULE] 게스트하우스 스태프들과 하우스 키팅 및 보육 준비

금요일



- 게스트하우스 하우스 키팅

토요일



- 보육 및 프로젝트 준비





[보육으로 가는길]

기차와 버스를 타고 우리가 간다!!

버스

월요일엔 버스 한번 수요일엔 버스 2번을 타고
아침 7시부터 아이들을 만나러 달려가고 있어요
피곤하지만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항상 설렌답니다~



아침부터 많이
피곤한 차훈이

● 버스 타고 가는 우리들

기차

목요일에는 기차를 타고 쉼썩따로 달려가는데
생각보다 느린 기차 덕분에 가는 길이 3시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조금은 멀지만 아이들을 보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간답니다.(가면 점심시간...)



생각 보다 빠르지 않은 기차
3시간이나 걸렸다!!!

● 기차 타고 가는 우리들





[첫 만남] 천사 같은 아이들과의 첫 만남



안녕안녕 친구들~



너희들 힘이 정말 좋구나



호기심 많은 아이들





[첫 만남] 천사 같은 아이들과의 첫 만남 :

마 오플라바, 양곤Y, 라인따야, 쉼베다 총4곳의
천사 같은 아이들과 첫만남을 가졌어요
낯선 우리들을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자 웃자 치즈~



아휴 무거워



모두 반가워요~





dk-pop dance]

쇼케시대 party에 맞춰서 꼭지점 댄스 배우기

꼭지점 댄스가 우리의 최선이었다는 건 안 비밀

멈추지 않는 점프
체력이 대단한걸~



아이들에게 쇼케시대 party에 맞춰서 꼭지점댄스와 안무를 만들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하고 특히 또와메~(가자) 하면서 가는 부분과
다같이 점프하는 부분을 좋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점프!!!





[동요 부르기]

나비아와 비행기를 미얀마어로 바꿔 부르기



현지 스태프인 묘지와 알렉스의 도움을 받아 한국 동요인 나비아와 비행기를 미얀마어로 바꿔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간단한 율동도 만들어서 한구절씩 알려주고 느리게 시작 해서 점점 빠르게 동요를 부르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주었습니다.

오 한국 동요 정말 좋은걸





[색과 과일 공부]

색깔별로 과일을 배우고 색칠해보기!!!

사과는 어디 있을까?

야무지게
색칠해야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기 위해 색과 과일을 미얀마어, 영어, 한국어 3가지로 준비해서 색을 알려주고
색별로 과일을 알려주고 이름을 말하면 그 과일을 골라보는 활동 후에
과일을 직접 색칠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그린 과일들에 아이들이 색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하우스 키핑 활동



1. 리셉션 데스크 : 양곤 YMCA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장소로
하우스 키핑 장소 중 **가장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올드 빌딩에 가는 남자 팀원들을 제외하고,
여자 팀원들이 매주 번갈아 가며 리셉션 데스크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오전 아홉시부터 오후 네 시 삼십 분까지
YMCA 스태프들과 작은 공간에서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스트 하우스 활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찍고 싶었지만 일이 바쁜 관계로... T.T)





2. 게스트 하우스 청소



암마 팀이 생활하고 있는
7층 숙소, 5층 도서관 청소를
진행하고 있어요.

도서관은 회의, 식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2. 게스트 하우스 청소 : 오전 활동과 오후 활동 나뉘어 진행됩니다.

암마 팀이 생활하지 않는 객실도
꼼꼼하게 청소합니다.
체크아웃이 된 객실을 스태프들과
함께 정리하고 청소해요!

빗자루와 대걸레를 사용해서
청소를 끝내고,





2. 게스트 하우스 청소



베개 덮개, 시트, 이불을 교체합니다.
처음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농담도 하면서 척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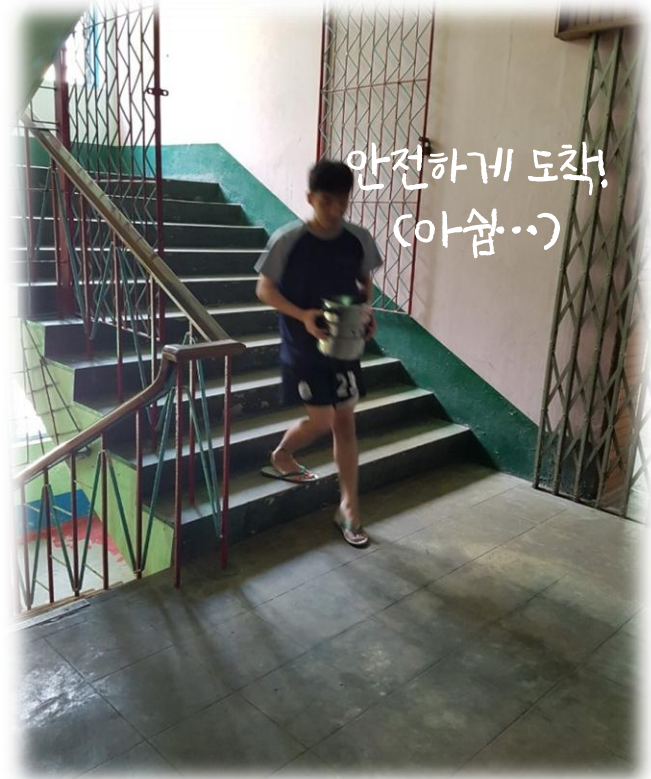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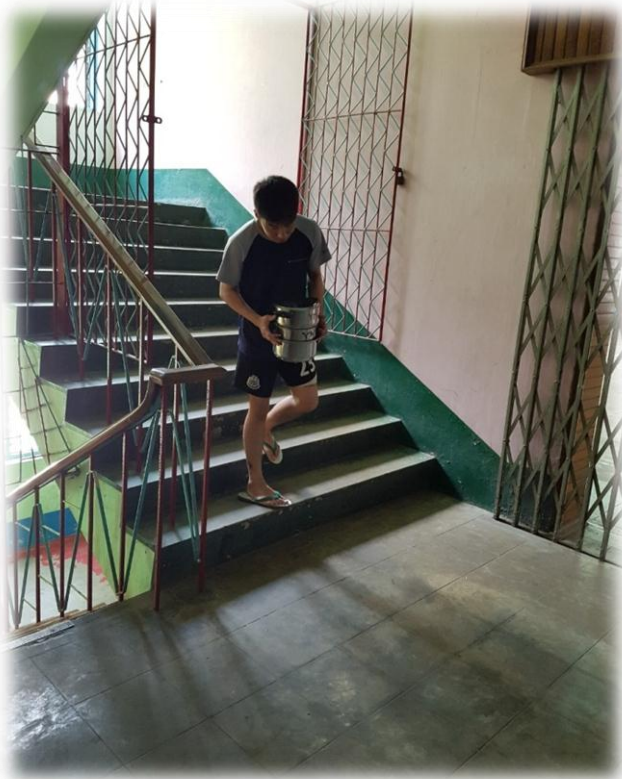


하우스 키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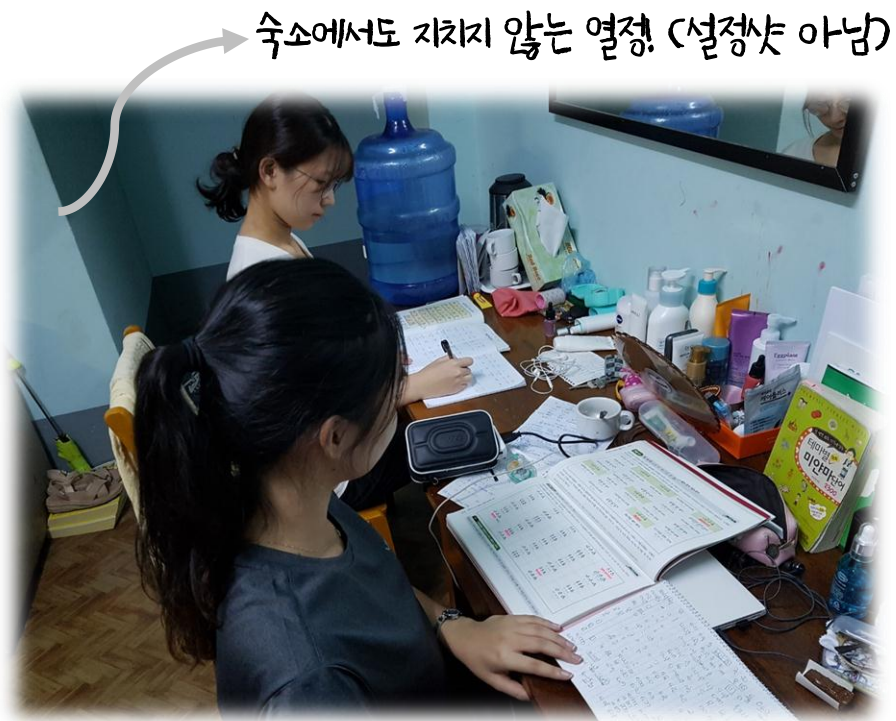


2. 게스트 하우스 청소

올드 빌딩 청소를 끝내고
부엌에서 요리된 식사를 가지고 오는 길!



미얀마어 스터디



숙소에서도 자치지 않는 열정! (설정샷 아님)

보육 활동 현지 스태프들과의 더욱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미얀마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화요일 보육 선생님(에띠, 띠띠)께서 야마 팀에게
미얀마어 특강을 해 주신답니다. 열공하는 야마 팀!!



알츠하이머 설명회



양곤 YMCA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설명회가 진행되었어요.

엄마 팀도 참석했는데, 아직 미얀마어에 능숙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지만
감사하기에도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증상, 환자를 대할 때의 태도, 간병인의 마음 가짐 등에 대한 얘기를 듣고
더욱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환자와 간병인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밀크티와 다과를 먹으며 잠깐 쉬다가, 행사장 정리를 도왔어요.
의자를 정리하고 벽에 붙은 현수막을 떼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려서
이 행사를 준비했을 양곤 YMCA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음 번에는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곤 YMCA와의 만남



양곤 YMCA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오피스 안의 스태프들은 물론
다른 지역의 스태프들까지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얌마 팀도 양곤 YMCA의 식구로서
참여해서 다른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 올 때의 다짐을 말하면서
새삼 처음의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이 때 사진은 없지만 오랜만에 꾸렸기 때문에 방에 와서 따로 찍은 사진 첨부)





- 미얀마 미용실 체험기:

9월 2주차, 미얀마 미용실로 머리를 자르러 간 치후니와 하니
컷 2000짖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



BEFORE



AFTER

머리를 자른 후 묘지가 치훈오빠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sorry chihun... “이라고 한 것은 안 비밀” 왜 미안해,, 묘지,?
가치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차이나타운 첫 길거리 음식: 양곤의 도심에 있는 차이나타운... 앞 포장마차 거리에서 먹었던 볶음밥과 산 누들~



우리 얼굴 말고 포장마차 분위기 보라고 올린 사진



섹시도발 암마~,,
미안마 온 후 처음으로 꾸며서 모두 신났음

마켓에 가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 암마를 위해 9월 2주차 차이나타운 입성
왠지 모르겠지만 이날 이후 한회를 제외한 4명이 모두 차례대로 아팠어요ㅠㅠ
암마팀은 당분간 길거리 음식 안 먹는걸루...





양곤 리버에서 감성 충전

감미로운 노래의 주인공.
양곤강을 장식함



치훈

혼자 맥주 광고 찍음..



하진



현아

하진이 노래 바로 옆에서 듣고 괴로워함

음료 한 캔 하며 양곤 강가에 앉아 감성 폭발!
서로의 이야기와 감미로운 노래가 함께였던 즐거운 시간
(양곤 강은 밤에 가야 감동이 두 배~)





- 보족 아웅산 마켓 방문 :

양곤에 있는 영국식 시장으로
다양한 수공예품, 귀금속 등 2000개가 넘는 상점이 밀집해있다



예쁜 가방을 get한 기쁨에 크게 한입
(오빠 그거 먹는 거 아니야...)

9월 3주차에 보족 아웅산 마켓을 방문한 암마팀 ♥
미얀마의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에 반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구경했답니다!
물건이 정말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상점이 위치해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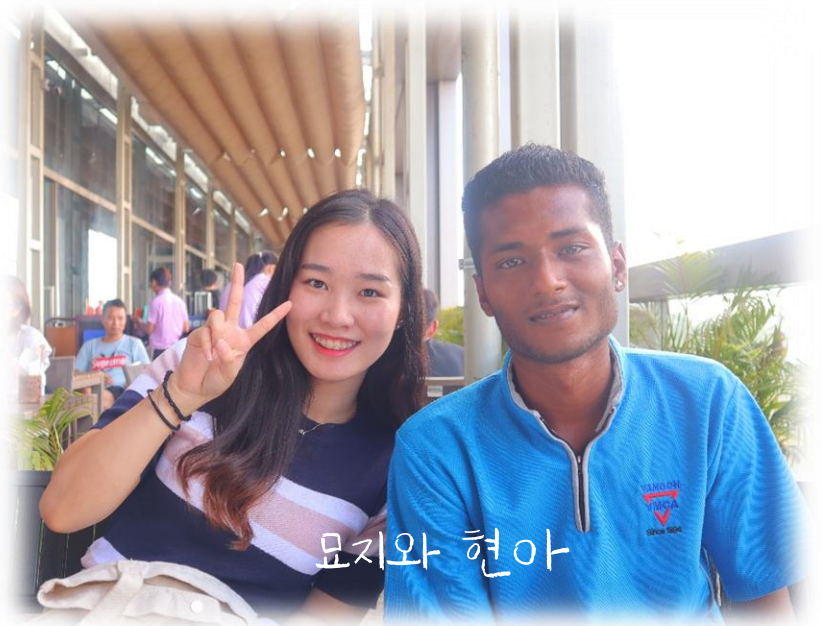
— 정션 시티 :

에어컨 뽕뽕! 정션시티~ 신식 아웅산 보족 마켓으로 한국의 백화점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아웅산 보족 마켓과 바로 이어져 있었답니다.



하진이와 현아

정션 시티 롯데리아 맞은 편 풍경



모지와 현아

정션시티,, 그 곳은 사랑이었다♥

미얀마에 와서 처음 롯데리아, KFC, 토니모리, 에뛰드 하우스를 마주한 암마팀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롯데리아에서 버거를 한입씩 베어 물고, 백화점에서 흘러나오는 모모 랜드 "뽐뽐"에 맞춰 몸을 흔들었답니다.
(Feat. 춤추는 암마를 보며 모지와 알렉스 등절)





-한국 음식 만들기



9월 4주차, 드디어 한국 음식 먹다!

미얀마 음식의 TOO MUCH 기름에 허덕이는 암마에게
산드라 엄마께서 요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 계획했던 메뉴는 라볶이였지만, 떡볶이 떡을 찾지 못해
결국 제육볶음과 닭볶음탕으로 변경!

쿠킹 마스터 한희와 치훈이 덕분에 오랜만에 한국의 맛을 느끼고
감동 받아 살짝 눈물 고임..

모지와 알렉스는 제육볶음이 너무 매워 잘 먹지 못했지만
우리의 요리에 엄지를 세워줬어요



떡볶이를 먹는 그날까지 암마의 요리는 계속된다..





-산드라 엄마님 집에 초대받다



근엄 진지,,, 묘지와 알렉스,,, 아버들과 사이 좋아요 ^^

9월 4주차, 산드라 엄마의 집안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가족 예배도 체험해보고
미얀마 가정식을 직접 먹었습니다 (망고쥬스 is love)

맘마팀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가족 분들께
감사함을 느꼈던 하루였어요

산드라 엄마께서 가족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해 주셨고
집안 곳곳을 다같이 구경했어요!
기독교, 불교를 위한 공간을 모두 마련하여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산드라 엄마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아버들을 정말 딸, 아들같이 여겨주시는
산드라 엄마의 사랑을 확인한 하루였어요! ♥





-미얀마 교회 방문



9월 4주차.
모지와 알렉스를 따라 ymca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녀왔어요

암마는 5명 중 2명만 기독교인이지만
미얀마 교회에 호기심을 가지고 모두 출발~

사람이 정말 많았던 큰 교회였고 한국 교회와 달리
예배 중간에 향을 피웠어요.

하지만 너무X100 더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앉아있었다는..ㅎㅎ





- 미얀마 문화에 스며들다

미얀마 전통 섰크림 다나개!
YMCA 리셉션에 다나가 나무를 직접
갈아서 바르는 천연 다나가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다나가 바르면 귀엽겠지? ㅎㅎ

남녀 모두 즐겨 입는 전통 의상 론재.
롱스커트 형태이며 허리를 여며 입어요.
초보자 한회는 유치원에서 누워 있다
론지가 풀리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끔찍
(하진 목격...애도 p12)



맘마팀 소감



치훈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다사다난 했던 첫 달, 무사히 끝난 것에 감사하며. 많은 아이들이 주는 긍정적
인 에너지가 있었기에, 많은 스템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한 달간의 여정을 잘 끝낼 수 있었다.
벌써 1달이 지나고 4달뿐이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쉬움의 연속이고, 지난 1달을 돌아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한 달이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들
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8주에서 10주, 이곳에 있을 시간은 120일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더 이 시간에
집중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앞으로 있을 상황들에 담대해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금은 열린 마음을 갖는 내가 되고 싶다.



한희

처음으로 미얀마에 도착해서 한 달 동안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음식들을 먹었고
새로운 활동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나 정신이 없는 한 달을 보냈다.

한 달을 돌아보면 정말 금방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지나온 한달 동안 정신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그 동안의 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나에 대해서
평소보다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러 가지 쓸모 없는 생각들도 많이 했지만 남은 4달 동
안 조금 더 편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곳 생활을 더 열심히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남은 120일 미얀마, 우리 팀,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가야겠다.





하진

기대와 걱정과 설렘을 안고 미얀마에 도착한 이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며칠 전에는 자고 일어났는데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많이 적응이 되었다.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고 아프기도 했었다. 도착한 지 2주 만에 W 아래를 찍었던 것 같다. 힘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 준 가족과 친구들 덕분에 금방 이겨낼 수 있었다.

이 곳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보육 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것이 생각보다 나를 힘들게 했었다. 아이들을 통해 얻는 에너지보다 뺏기는 에너지가 더 컸고 이동 시간이 길어 힘들었다. 다른 팀원들을 보며 '왜 나는 아이들과 즐겁게 있지 못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러나 아이들과 같이 춤을 추고, 내가 웃으면 나와 눈이 마주친 아이들이 같이 씨익 짓는 웃음을 보면 마음이 따듯해지고 밝아지는 느낌이 든다.

YMCA 감사님과 스텝들이 정말 우리를 많이 신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 너무 감사하다. 특히 산드라 감사님께 걱정을 많이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 묘지와 알렉스는 휴일과 늦은 밤에도 우리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준다. YMCA 식구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미얀마 어 공부도 열심히 하며 이곳 생활을 맘껏 즐기고 싶다.



암마팀 소감



화진

처음 한국을 떠날 때는 5개월 언제 가나... 이 생각뿐이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이곳에서는 한국에서보다 시간이 훨씬 빨리 흐르는 것 같다. 처음 막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휘청거리는 느낌이었었는데, 그래도 한 달 있었다고 이제는 좀 틀이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뭐 하는 날, 내일은 뭐 하는 날, 이렇게 일상이 생기는 게 신기하다.

하우스 키핑을 같이 하는 스태프 분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말은 안 통하고, 그냥 예~ 우와~ 하면서 청소를 엄청 열심히 했더니 좀 친해졌다.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음) 그래서 항상 이 스태프 분들을 보면 이 생각이 든다. 진심을 다하면 상대도 알아주는구나.

미얀마에 와서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곳은 똑같은 것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가 많이 달라서 의도치 않게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게 괜한 걱정이었음을... 물론 소소한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보육에 있어서 아이들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냥 혼자 놀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준다., 그러고 보니까 한 달 내내 먼저 다가가기보다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다가와 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다음 달은 내가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리고 YMCA 스태프 분들과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 짱 친해져야지.





현아

항상 바쁜 삶을 살던 나였다.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생각했다. 치열함 속에서 나만의 성장을 느꼈고 그것을 양분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다 나의 속도와 무게가 버거울 때쯤 라온아띠를 만났다. 여기에 오기까지 나에게에는 꽤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마음 한 구석에 불안을 숨겨두어야 했다.

누군가 했던 말처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나에게 멈춰있는 것과 같았다. 미얀마의 나는 여전히 생각이 많지만, 조금은 가볍게 일상을 넘기고 천천히 시간을 흘러 보내고 있다. 사는 대로 흘러간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듯 물 위를 부유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일상도 꽤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달을 마무리 하는 지금의 나는 미얀마에 와서, 미얀마를 만나서 행복하다. 한 달의 모든 순간들이 예뻐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저 아이들을 만나서 눈을 마주치고 교감하며 벅찬 행복을 느끼고 양곤 YCMA 식구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함을 느끼고 미얀마를 알아가고 미얀마 어를 배우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당연했던 것들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다. 예쁘지 않은 날에도 감사한 것들이 항상 있었고 이 순간들은 일기장을 채워나가고 있다.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